

# 시간·자연·영혼의 빛 투영...마카오에 작품 설치

중견작가 김상연, 국내외 오가며 연초부터 활동 활발

‘시간탑’ 마카오문화센터 광장서 관람객들에 영구 선보여  
중·일 작가와 작업 길이 12m×너비 7m×높이 9.5m 규모  
“존재 순환 기념”...뉴욕 특별전 이어 남경비엔날레 참여도



마카오문화센터 광장에 영구, 설치된 ‘시간탑’

회화와 판화, 설치 미술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전남 화순 출생 중견 작가인 김상연씨가 미국 뉴욕 등 국내외를 오가면서 연초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작업했던 작품이 마카오 문화센터광장에 영구 설치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김상연 작가에 따르면 지난해 ‘제5회 마카오 국제예술 비엔날레’ 작가 선정 때 외부설치작가전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시에 참여할 작가 공모를 거친 뒤 자신을 포함한 중국의 관화이빈, 일본의 사카구치 히로토시 등과 팀을 이뤄 작업한 ‘시간탑’(Time Tower)이 국내 문화체육관광부와 동등권 마카오문화센터 광장에 영구, 설치돼 관람객들에 공개되고 있다.

작품 ‘시간탑’을 위해 수많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장소를 오갔을 만큼 공력을 들인 이 작품은 일단 전시기간인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먼저 선보인 뒤 설치가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기획은 현지 큐레이터인 펑보이, 류강, 우웨이야 맡았다고 한다.

마카오문화센터광장에 공공미술 작품으로 설치된 ‘시간탑’은 청동, 스테인리스강, 내후성강, 알루미늄, 대리석을 재료로 했으며, 규모는 길이 12m×너비 7m×높이 9.5m에 달한다.

‘시간탑’은 멈춘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자 ‘빛으로 쓰인 시’로, 시간, 자연, 그리고 영혼의 빛을 기리는 기념비

를 지향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적 언어로 인간과 시공간의 영원한 대화를 재구성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경외, 시간의 철학, 공공문화의 개방성을 드러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마카오의 지역적 맥락을 품고 있다.

특히 작품의 웅장한 구조조물은 시간과 공간이 응축된 시편(詩篇)으로, 마치 해시계처럼 빛과 그림자의 흐름 속에 마카오 특유의 문화적 연륜을 새겨 넣었고, 성 바울 유적에 커켜이 쌓인 문명의 기억과 디지털 시대의 에너지가 솟구치며 새로운 시각적 시를 빚어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일본·한국 등 세 작가의 동양적 지혜와 창작 요소가 교차하며 펼쳐는 대화·바람과 빛의 율림, 만물의 정령, 에너지의 순환, 확장된 정원은 ‘만상공생’(萬象共生)의 우주관을 감각 가능한 공공의 장으로 전환하고, 내적 성찰을 위한 영혼의 귀소처가 된다는 의미를 투영해내고 있다.

아울러 ‘시간탑’은 일종의 영혼의 등대로 볼 수 있으며, 그 개념적·형식적 구조와 개방적인 예술 언어를 통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 분위의 공공장소 속에서 중·일·한이 공유하는 역사적 깊이와 미래적 긴장을 아우르는 정신적 랜드마크를 표방하고 있는 한편, 관객과 상황적·지각적 연대를 형성해, 개인과 집단의 기억, 삶과 영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김상연 작가는 ‘시간의 탑’이라는 작품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이 작품은 인간이 시간 속을 살아간다는 사실, 그 안에서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순환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이 탑을 통해 시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그 시간과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 작품은 마카오 풍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내면 속에 잠든 ‘우리들의 시간’을 깨우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작가는 “하루의 태양 궤적이 작품의 표면을 따라 이동하며 색과 질감을 바꾸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관객의 감정 또한 미묘하게 흔들린다”면서 “시간은 빛이 물질 위에 남기는 흔적이다. 관객이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존재’가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연 작가는 전년대 미술학과(서양화 전공)를 거쳐 국립중국미술학원 판화와 석사 과정을 졸업, 다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돌멩이나 고래 등 일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는데 전착해왔다.

‘수인판화’(Water-based Woodcut)로 대표되는 수묵과 판화의 결합 외에 검은색(玄)을 주조로 해 무겁고 묵직한 서사를 기반으로 한 인간 욕망과 존재 탐구, ‘검은 심장’,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 등 회화, 설치, 공공미술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펼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업에 집중해왔다.

작가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 참석차 지난 12월 28일 뉴욕 현지에서 머물며 예술교류 모색 등 미술 일정을 소화하고 15일 귀국한다. 귀국한 뒤 바로 중국 난징으로 가 ‘남경국제수묵비엔날레’에 참여할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영화가 데우는 겨울...스크린 위 번지는 ‘온기’

찬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줄 다채로운 영화들이 광주극장을 찾는다. 새해 첫 GV부터 특별시사회, 화제의 국내외 신작 개봉까지 이어지며 겨울철 극장가에 온기를 더할 전망이다.

먼저 새해 첫 GV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영화 ‘고백하지마’의 류현경 감독과 염혜란 배우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다.

‘고백하지마’는 배우 류현경이 감독·출연은 물론, 편집·배급·마케팅을 도맡아 기획부터 극장 개봉까지 전 과정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해 독립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실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김충길이 류현경에 고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현실이고,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순간들을 포착해 현실 및 연기의 경계가 흐려지는 서사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GV에서는 작품의 제작 과정과 배우·감독으로서의 고민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어 22일 오후 5시에는 영화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 광주 특별시사

회가 진행된다.

1979년 10·26사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한 이 작품은 1946년부터 1980년까지 김재규, 박정희, 장준하 세 인물의 첫 인연과 마지막 운명을 역사적 사실과 교차해 추적하는 하이브리드 역사 다큐멘터리 극영화다.

독립영화사 리얼콘시네마 제작,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함께보기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광주극장, 17일 GV·22일 특별시사회 ‘풍성’

류현경·염혜란 참석...‘리틀 아멜리’ 등 상영도

특별시사회는 영화 상영과 함께 감독과 출연진이 만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1월 개봉작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15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광장’은 북한 평양에 파견된 스웨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보리와 평양 시민 복주, 통역관 명준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경계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결을 응시한다.

김보솔 감독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졸업작품이자 장편 데뷔작인 이 작품은 최인훈 작가의 소설 ‘광장’에서 영감을 받았다. 제49회 안시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콩트르상 심사위원상과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며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성취로 주목받았다.

21일 개봉할 ‘시라트’는 광활한 사막에서 열리는 레이브 파티를 배경으로 실종

된 딸을 찾기 위해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그린다. 올리베르 라세 감독은 신의 형벌인지 장난인지 모를 심판대 위 한 인간의 모습을 로드무비 형식으로 담아낸다.

제78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과 사운드트랙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칸영화제 기간 내내 화제작으로 손꼽힌 작품이다.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 ‘굿 포 낫씽’이 스크린을 채운다.

‘리틀 아멜리’는 프랑스 문단 대표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자전적 소설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이 원작이다. 작은 산마을에서 태어난 세 살 소녀 아멜리가 자신을 신이라 믿으며 세상

의 사계절을 마주하는 내용이다.

제78회 칸영화제 특별 상영 부문 초청을 비롯해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관객상, LA비평가협회상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 ‘여행과 나날’도 흥행을 이고, 국내 관객과 만남을 가진 미야케 쇼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 ‘굿 포 낫씽’은 고등학교 졸업 앞둔 세 청춘이 일본 삿포로의 순백의 설원 속에서 방황과 노동, 우정을 겪는 과정을 담아낸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My Utopia’ (2020)

## ‘새’로 일깨운 삶의 본질...시각적 표현

김도영 개인전 내달 19일까지 드영미술관

김도영 관장(드영미술관)의 개인전이 지난 12월 19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1전시실에서 ‘삶 그리고 시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출품작은 2013년 이후 수장고에 있던 작품을 망라해 17점.

자연의 형상을 통해 삶의 시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업이 특징인 김 관장의 회화는 화면에 자리한 꽃과 나무,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는 작은 새들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작가가 지나는 기억과 감정이 머물러 있는 자리로, 작품 속 자연은 실제 풍경의 재현이 아닌, 마음속에서 오래 발효된 장면들이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된 결과물에 가깝다.

김 관장에게 새는 고향이자 삶의 본향 혹은 본질을 깨우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관장의 새에 대한 기억은 유년 시절 밭 벚꽃에 누워있으며 들었던 새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잊혀져가는 유년기의 기억들을 깨우고 있는 셈이다.

작가가 새를 중심 모티브로 삼는 데에는 개인적 경험이 깔려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건넨 철쭉꽃의 따뜻한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작가의 회화적 정서를 지탱하는 근원이 된다. 화면에서 새들이 머무는 위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자연과 맺는 관계는 작가가 품어온 내면의 이야기를 은근하게 드러낸다.

김 관장이 추구하는 자연은 관찰의 결과라기보다 삶의 여정을 함께 한 동반자에 가깝다. 꽃 한 송이와 언덕 위의 나무, 작은 새 한 마리가 놓인 자리에는 작가가 지나는 시간의 결이 스며 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은 이 풍경들은 담담한 톤 속에서 오히려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래도록 품어온 감정과 자연에 대한 시선을 한 공간에 모은 결과물로, 무등산 자락에서 다시 이어가기 시작한 삶의 시간도 과거의 기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이러한 흐름은 그의 회화를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변화시켰다.

김도영 관장은 “독학으로 늦은 출발을 했지만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그림들을 작업하고 싶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